

● 일본의 양계소식

산란계

1. 군마켄(群馬縣)유끼히라 · 계란 ISO 14001 취득

유한회사 유끼히라(雪平)양계장(사장, 유끼히라 사이오:雪平 幸男)그룹의 유끼히라 · 계란이 이번 환경유지시스템의 국제규격 ISO 14001의 인증을 받았다.

유끼히라 양계장 그룹은 깨끗한 농장에서 안전 · 신선 · 양질의 계란 생산을 이념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 ISO 14001의 인증을 취득한 유끼히라 · 계란은 축산기지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최신에 양계장이다. 등록범위는 닭의 사육, 계란의 세척 · 선별 · 포장 및 판매이며 양계장으로서 일본에서 2 번째로 인증을 받은 것이다. 생산에서 GP센터, 판매까지 일관된 광범위의 인증은 일본에서도 처음이다. 이 양계장에서는 2년 전부터 인증취득을 계획하여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고 2001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여 조직체제의 정비, 환경매뉴얼의 작성 등으로 체제를 갖추어 금년 3월28일까지 재단법인 일본과학기술연맹 ISO 심사등록센터에서 인증을 받았다(계명신문발취).



윤 병 선

한일사료(주) 기술연구소 부소장
농학박사

2. 살모넬라 자주검사 실시 상황 변화

1995년부터 산란계 농가의 자주적인 검시재료 채취와 검사신청에 의한 살모넬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1년 11월말까지 야마나시켄(山梨縣) 서부가축보건위생소만 260개의 검체조사가 실시되어 조사개시 년도에 비하여 385%의 실시되었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시 농가수는 1997년보다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연간 검사신청 건수는 증가하여 정기적인 검사실시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검사대상 시료는 맹장분과 먼지(粉塵)가 전체검사의 3/4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계체(鷄體:총배설장, 실질장기) 등으로 나타났다. 보조적으로 실시한 설문지조사에서는 산란계 농가의 살모넬라균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것이 나타나 현재 자주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농가에도 확대될 전망이다(야마나시켄 축산시험장 요약발표 발취).

3. 6월 예상 계란값은 작년과 같음

일본농협중앙회(全農)가 발표한 6월의 축산물시황예측의 계란값은 전년과 같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계란의 경우 공급면에서 산란계의 과다사육이 변하지 않아 계속되는 생산량 과잉으로 잉여계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수요면에서는 장마철에 따른 소비감소로 물량의 정체가 증가될 것이 우려된다. 월드컵개최에 따른 수요활성화에 기대하고 있다. 거래에서는 중간크기 기준 월평균 140엔(1,400원)정도로 보고 있다.

5월 28일에 발표한 지난 4월분의 산란계 압병아리 출하수수는 1천 5만 8천수로 전년대비 96.3%이었으며, 5월 상순경에 조사한 향후 3개월의 병아리 출하예상에 대하여 전년대비 5월 103%, 6월 99%, 7월 101%로 응답하였다(계명신문발취).

표1. 동경계란가격

(단위: 엔, 일본 계명신문 발취)

| 크 기 | LL | L | M | MS | S | SS | 입하량 |
|-----|-----|-----|-----|-----|-----|-----|------|
| 가 격 | 145 | 156 | 166 | 181 | 175 | 105 | 920톤 |



육 계

1. 육계농장에 HACCP시스템도입

야마나시켄(山梨縣) 축산시험장의 지난해 12월의 보고에 의하면 육계농장에서 HACCP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은 사람의 식중독 원인균으로 밝혀진 감피로박타가 사회적으로 중요시되고 있어 육계농장에서의 감피로박타 오염상황을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초생추도 입계군에서는 감피로박타 감염이 없었지만 육추기에서 병아리를 육성하여 다른 평사계사로 옮기고 난 후의 계사바닥, 새로 배설한 계분, 닭의 총배설장등에서 감피로박타가 분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평사계사의 환경 조사결과 음수, 바닥, 운동장 및 물이 고여 있는 곳, 농장사무소 주변에서도 감피로박타가 분리·검출되었지만, 계사내 떨어진 쥐의 분에서는 분리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결과를 기초로 위해발생 방지조치를 제시하고 농가의 작업체제 개선과 의식개혁을 추진하면서 HACCP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농장에서의 감피로박타 청정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야마나시켄 축산시험장 요약발표 발췌).

2. 후쿠시마켄(福島縣) 오까야마(岡山)에서 뉴캐슬병(ND) 발생

금년들어 뉴캐슬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 농림수산성(농림부) 위생과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5월10일 후쿠시마켄 소오마군의 2계군 2만수의 육계사양 농가의 한 계군에서 뉴캐슬병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어 발생된 계사의 9,800수를 도태(농장주 자가부담에 의한 자율적 도태)하였고 남은 건강한 계군은 가축위생보건소(축산위생연구소)의 관리하에 격리와 임상관찰을 받고 있다. 같은 종계장에서 병아리를 도입한 인근의 수개 농장에서는 이상이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후쿠시마켄에서의 뉴캐슬 발생은 13만개의 것으로, 5월13일에는 오까야마켄(岡山縣) 이바라시(井原市)의 산란계농가(성계 8만1천수, 큰병아리 1만수, 중병아리 3,200수규모)의 1 계사에서 뉴캐슬 바이러스가 확인되어, 전 사육계군의 살처분(비용은 행정기관 부담)되었다. 오까야마켄에서의 뉴캐슬병 발생도 14년만이다.

작년에는 메추리나 애완용 닭 등을 중심으로 5 개현, 10 개 농장에서 2만 588수가 발생하였으나 금년에는 이러한 애완용 닭 등에서 발생되고 있고 2월에는 아오모리켄(靑林縣)에서 방사중인 산란계와 미야자키켄(宮城縣)의 육계농장에서도 발생하여 뉴캐슬 바이러스가 상주하고 있다는 전제로 새로운 백신접종 등의 철저한 방역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계명신문 발췌).

3. 닭고기 출하는 전년대비 상반기 96.5%, 하반기 102.5%로 예상하였고 6월의 닭고기 수입동향은 표2와 같다.

표2. 6월 닭고기 수입동향

(도매가격: 단위 엔, 日本食鳥協會자료 발췌)

| 품 목 | 국 별 | 동 경 | 오오사까 | 품 목 | 국 별 | 동 경 | 오오사까 |
|-----------|-----|-----|------|--------|-----|-----|------|
| 뼈포함넓적다리고기 | 미 국 | 298 | 255 | 넓적다리고기 | 미 국 | 405 | 320 |
| | 태 국 | 358 | 397 | | 태 국 | 403 | 345 |
| | 브라질 | 375 | - | | 브라질 | 290 | 311 |
| 가슴고기 | 태 국 | 250 | - | 꼬치고기 | 태 국 | 603 | 472 |
| | 중 국 | 200 | - | | 중 국 | 540 | 449 |

※ 상세한 내용은 한일사료 기술연구소로 문의 바람 (031-280-4046)